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1973년 개원 이래 한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 활동을 해 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예술지원기구였다면, 이제 문화예술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예술지원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오후 5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알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명곤 국립극장장,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과 이성림 예총 회장 등 각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병익 예술위원장의 출범선언문과 새로운 CI가 발표되었으며, 퍼포먼스와 문화우체통 설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졌습니다.

민간주도의 예술지원기구라는 예술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예술위원회에 바라는 점 등을 영상메시지와 각계 인사들의 축하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출범식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의 자리뿐만이 아닌 한국 문화예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술다운 예술을 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2005년 2기 강좌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 간 소설가인 박범신 선생님의 진행으로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2005년도 하반기 강좌를 개설합니다. 2005년도 하반기 강좌에서는 장래 문화지향도를 바꿀 수 있는 젊은 소설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문학 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만나고 싶은 윤성희 이기호 심윤경 백가흠 오현종 손홍규 이신조 김도연 김종광 김종은 편혜영 김도연 김 숨 박성원 등 14명의 작가가 직접 추천하는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학의 깊은 맛을 음미해 봅니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를 직접 수강(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저녁 6시 50분까지 아르코미술관(구 마로니에미술관) 3층 상설예술강좌실로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 문학팀(02-760-45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한국문학! - 2005년 제3분기 우수문학도서 선정/2005년 제3분기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학희생프로그램추진위원회는 제3분기 우수문학도서와 문예지게재우수작품 지원대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술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추진위 사업 예산 52억 2천 만 원 중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에 43억 원, 문예지게재우수작품 지원사업에 3억 2천 만 원, 우수문예지 구입 배포사업에 6억 원을 투입, 문화소외지역에 우수문학도서를 보급하는 한편 한국문학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3분기 우수문학도서 최종 선정회의를 갖고, 권지예의 『꽃계 무덤』 등 소설 20종(21권), 김광렬의 『풀잎들의 부리』 등 시집 24종, 손정수의 『뒤돌아보지 않는 오르페우스』 등 평론 4종, 김윤식의 『비도 눈도 내리지 않는 시나기와역』 등 수필 5종, 김용택의 『내 똥 내 밥』 등 아동문학 10종, 백하룡 희곡집 『꽃피자 어데선가 바람 불어와』 등 우수문학도서 64종(65권)을 선정하였습니다. 2005년 제3분기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으로는, 예심을 걸쳐 본심회의에서 강정의 『풍경 속의 비명』 등 시인 100명의 시 100편, 강동수의 『금발의 제니』 등 소설가 20명의 소설 20편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학희생프로그램추진위원회 사무국(02-760-4690~1)으로 문의하시거나 www.for-munhak.or.kr/www.lotteryart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OUT 전시관람 프로그램

학교 또는 단체에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미술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미술작품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미술활동 등 살아 있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열린 사고의 배양, 창의적 발상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다'라는 수공예적인 수고를 바탕으로 하는 회화작업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는 최진욱 흥경택의 작품을 통해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 회화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작품감상과 함께 회화의 기본이 되는 드로잉을 비롯한 여러 미술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1인 5,000원입니다. 참가날짜는 토요일반(11:00, 2:00)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 / 수요일반(3:30) 9월 28일,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입니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www.arko.or.kr) 선착순 접수하며, 20명 이상 단체 신청도 받습니다. 전화로 예약(02-742-2274) 또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통이 미래다 ⁰⁵ 문화의 달

매년 10월 문화의 달과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치러지는 문화인들과 시민들의 잔치가 올해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 10월 15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황수경·전인석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예술상 및 오늘의젊은예술가상 시상식, 대한민국문화훈장 서훈 등의 시상식 및 축하연을 가집니다. 또한 전주 지역 곳곳에서 풍물대동길놀이, 전시회, 심포지엄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이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립니다. 소리고장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의 맛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5 문화의 달 기념식 10. 15(토) 15:00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2005 문화의 달 행사

| 일시 | 장소 | 프로그램 |
|-------------------|-----------|------------------|
| 9.23(금)-10.20(목) | 상설 | 국립전주박물관 |
| 10.8(토) | 16:00 | 전북대구(舊)정문, 덕진공원 |
| | 20:00 | 동문내거리특설무대 |
| 10.9(일) | 18:00 | 걸고싶은 거리(연예피아) |
| 10.10(월) | 17:00 | 삼천둔치 |
| | | 경기전 앞 |
| 10.13(목)-10.15(토) | 상설 | 경기전 수복청 일대 |
| | | 경기전 |
| | | 태조로 민속장터 |
| | | 한옥마을 일대 |
| | | 경기전 |
| | | 오목대-태조로-경기전 |
| 10.13(목) | 14:00 | 오목대-태조로-경기전 |
| | 15: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6: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6:30 | 경기전 |
| | 17:00 | 오거리-견고싶은거리-객사 |
| | 18:00 | 오목대 간이무대 |
| 10.14(금) | 9:00 |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
| | 10:00 | 전주역사박물관, 한옥마을 일대 |
| | 11: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3: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4:00 | 오목대-태조로-경기전 |
| | 15: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5:30 | 시청강당 |
| | 16: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7:00 | 오거리-견고싶은거리-객사 |
| | 19:00 | 경기전 특설무대 |
| 21:00 | 경기전 특설무대 | |
| 10.15(토) | 11:00 | 오목대-태조로-경기전 |
| | | 태조로 |
| | 13:00 | 경기전 마당무대 |
| | 14:00 | 경기전 특설무대 |
| | | 객사 |
| | 15:00 |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
| | |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
| | | 경기전 |
| | 16:30 | 경기전 |
| | 17:00 | 경기전 마당무대 |
| 19:00 | 경기전 특설무대 | |
| 10.22(토)-10.23(일) | 오목대, 전주교대 | 국제이미바독교류전 |